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중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617호 현대불교
2007년 2월 28일(음력 1월 11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

지금 젊은 분들도 그렇거니와 애들서부터 어린까지 다 알아야 할 인생관, 인생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주어졌고 어떻게 조화가 돼서 돌아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화원의 꽃이 저렇게 한데 합쳐져서 조화가 이루어졌듯이, 또는 산의 고목이나 벌레 먹은 나무들, 짙고 긴 나무들, 풀 등도 각기 모습이 다 다른 것들이 같이 모여 있기에 조화를 이룬다는 것, 산골마다 풀도 좋고 돌도 있고, 그 여러 모습들이 조화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눈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대한 것도 역시 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퉁이로 생각해서 물 위에 산이 가고, 산 위에 물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나, 지혜 있는 데 마음이 있고 마음 있는 데 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자기한테 있다는 얘깁니다. 지혜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지혜는 물로 비유했고 마음은 이 자체는 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습 모습이 다른 여러 종류들이 상황을 이루고 있는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살아나가는 모습들이 다르고 이름들이 다르고 또는 병든 사람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모두 다 같이 사는 것처럼 산에도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와 같이 물이나 산이나 물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우리 한번 그것을 타진해봅시다. 물이라는 것은 지혜로 비유하니 우리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나 또는 감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나 온갖 지각이 한데 합쳐진 것을 들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로 듣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받아들이고, 혀로 맛을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는 부딪치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 모두를 지혜롭게 풀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어서 화가 불끈 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감미롭고 친근하고, 어떤 땀 땀음이 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상을 찌푸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이것을 때에 그 듣는 순간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얘깁니다. 달라지는 이 마음 자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물로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가지로 듣기 때문에 산으로도 비유한 겁니다.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도 역시 아름답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아주 속상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가지 아니겠습니까? 냄새를 맡아서 구린내가 나는 것도 있고 향기로운 냄새도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봐서 아주 맛이 없는 것을 느끼고 맛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또는 우리가 손으로 쥐어서 촉감이 좋은 것이 있고 아주 거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하는 그 자기의 모든, 한데 합쳐진 지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청각이 뚜렷하고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나 모든 게 융합해서 돌아가는 것을 발현하고 서로 상응하게 하는 그 자체의 지혜가 넓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바다와 같아야 된다. 좁아서는 허공에 비늘구멍도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하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들은 보고 듣고 생각 일어나는 것, 모두가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생이요, 부처님의 뜻은 자기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 마음조차도 배꼽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처음 단전을 할 때 배꼽 밑에 중심을 두라고 하지만 그 배꼽까지도 송두리째 빠졌다 이 소립니다. 송두리째 빠지니까 나라고 내세를 게 없는 것이 공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귀로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느끼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도 고정되게 보는 게 하나도 없고 말하는 것도 고정되게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내 몸도 어떠한 부분을 내 몸이라고 할 수 없게끔 모든 면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그렇게 고정되지 않게 돌아가는,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왜 '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한'이라는 것은 이 내 몸 안에 5억이라는 생명이 들어서 한데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고 자기 소임을 맡아가고 돌아가니까 '한'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그 생명체가, 한데 합쳐졌기 때문에 손을 움직여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상응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하더라는 얘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바로 한 화병에 여러 가지 꽃을 담아서 조화가 되게 하듯이, 산에도 모든 게 조화가 돼서 있듯이 그렇게 조화가 돼서 연방 돌아가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의 소인 말은 지금 대표인 즉, 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억의 생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 5억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대표하는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이 몸 안에서 돌아가는 것도 거기에 응해서 돌아가는 것이요, 또 그 마음에 응해서 바깥의

기 가정을 보호하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는 사람이 사회도 보호할 줄 알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내가 앉은 자리를, 내가 내 발등에 볼 떨어지는 거를 끝 수 있더라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면에 여러분이 '아, 부처님 법은 이렇게 어렵구나! 이걸 깨달아야 한다나... 아이구, 우린 깨닫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중생 부처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의 생각을 해도 그것은 집착이 인을 짓는 것이니라 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보시를 하고 이런 거는 좋은 일이고 이런 거는 공부 잘했고... 하더라도 착을 둔다면은 그것도

선인(善因)을 짓는 거죠. 집착을 했으니깐. 그래서 악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고 선에 집착을 해도 아니 되느니라, 일상생활에서 오만한 거 하나라도 착을 뒤서는 안 되느니라,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해라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내보 봐라' 한다면 어디 눈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귀에 마음이 붙어 있다고 하겠습니까? 코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배꼽에 붙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너무도 광대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 고정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처라는 이름이 있지 만약에 공하지 않았다면 부처라는 이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팔십종호(八十種好) 할 때 '종호', '종'도 '호'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생각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상태로 우리는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신도 없거니와 옛 사람도 없고, 옛 물도 없다는 뜻이 바로 이런 데 속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생이다 부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중생이고 저렇게 하면 부처인데 내 부처를 어떻게 깨

달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부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잘못되고 잘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언짢은 거를 너무도 잘 알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생활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태어났으면 나쁘고 좋은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려를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알 만큼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묵인하고 그냥 부처님의 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 먹기에 달린 이 한생각을, 시대로 봐서도 우리가 단연코 중생이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크게 생각하려면 크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려면 작게 생각하고, 내가 우주 바깥을 벗어나려면 작아나고 안에 들어오려면 들어있고,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있으려면 있고, 바늘구멍 속이라도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크고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참자기의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생활 속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도 그렇고, 나라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사회를 비유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각종(중)에 어떠한 걸 봤다, '이 참 위대하구나!' 이럴 때 즉 '이력하면 안 돼!' 하는 그 일념을 낼 수도 있죠.

한 사람의 한생각, '한 그릇'이라는 뜻도 되고 '한마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5억이라는 생명의 능력도 그렇고 하나같이 생활을 해나가는 데 부딪어 없애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고 다니게 하고 또 먹고 싶으면 먹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게 하는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생각을 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몸통은 하나가 아니라 5억의 생명들이 한데 합쳐서 대표인으로 됐는데, 대표인끼리 또 한데 모이면 그 '한'이 너무도 광대무변해서 어디고 안 달는 데가 없이, 아니 담을 게 없이, 아니 돌아가는 게 없이, 아니 달는 게 없이, 아니 비치는 게 없이 광대무변하게 상응할 수가 있다는 점

22면으로 계속

내 마음이 고정되게 돌아가지 않고 공했으니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전부 공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착을 두지 말고
그냥 무심, 무심으로 하라

상대를 접하는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있죠. 뜻을 이루어서 참자기를 자기가 발견하는 계법을 지키지 않아야, 그 계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계법을 지키지 않는 반면에 결국은 범하지 않는다. 앉아서 다리를 틀고 좌선을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한 것입니다.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깨친다 안 깨친다를 떠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 여자고 남자가 젊고 늙고 간에 불문에 부치고 자기 앉은 방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중생이라고 말한 것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조국만이 아니라 나라에 태어났으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자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옥불조성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도성스님



석조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음양지기 저자 이종두 원장의 천기비법 대공개 강좌



일 자	과 목	교 육 내 용
1주차 이론1	1. 동양철학	- 일리상원론, 삼국론, 기와 효의 상관관계
	2. 효의 원리	- 효와 후손의 사주 운명과의 상관관계
	3. 풍수	- 부모생도시 효와 필과 후손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 조상 유택이 후손 양택(진, 사업)에 미치는 영향
	4. 수택	- 풍수지리학 관상법의 이해
		- 역학(사주)의 기의 연관성
	5. 지기학	- 수택 찾는 방법, 수택을 100% 차단하는 방법
	6. 기와 물	- 수택과 지기와의 상관관계
7. 운과 기	- 땅기, 물기	
8. 양명기서	- 땅, 물, 기와 운의 상관관계	
2주차 이론2	1. 양택론	- 양명(지리)의 지기/수택/물/진단 및 실습
	2. 음택론	- 주역(사주)의 음택을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 유택(매장, 남궁)의 음기/양기(행)의 명당 처방 방법
2주차 실습	1. 양택실습	- 주역(사주)의 지기/수택/물/진단 및 실습
	2. 음택실습	- 주역(사주)의 음택을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3주차 실습	1. 양택실습	- 유택(매장, 남궁)의 지기/수택/물/진단 및 실습
	2. 음택실습	- 유택의 음택을 명당으로 처방하기 실습
4주차 종합	1. 인제강진단방법 강의 및 실습	
	2. 종합 정리 및 질의응답, 교육이수증 수여 및 우수교육생 포상	

- ◆주 관 :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효도원)
- ◆일 시 : 2007년 3월 11일부터 4주간 매주 일요일 10시 ~ 17시 (4일 교육, 종식 제공)
- ◆강 사 : 음양지기의 저자,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 원장 이종두 직접 강의
- ◆참 가 비 : 60만원(양명기서 사은품 증정)
- ◆입금계좌 : 우체국 014167-01-018064 박서연(효도원)
- ◆접 수 : 전화접수, 입금순으로 선착순 50명 마감

한국음양지기“穴”연구원 <http://www.jigi.org> 02)579-2560